



Press Release
Ver. 5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김혜진
jin@mediacityseoul.kr
02.2124.8988 / 010.8750.1904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이선유
seonyu@mediacityseoul.kr
02.2124.8979 / 010.8500.9686

서울시립미술관

SeMA 비엔날레 담당 큐레이터
유민경
minkyungyoo@seoul.go.kr
02.2124.8973 / 010.8642.2089

서울시립미술관 홍보 큐레이터
변지혜
bsjihye@seoul.go.kr
02.2124.8928 / 010.2783.8605

웹사이트 www.mediacityseoul.kr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 Internet Explore에서만 열람 가능)
<http://webdisk.esoul.go.kr/ohd/pm/home/login.php>
Guest 로그인 → ID: bsjihye PW: sema2013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의 두 번째 책

『귀신, 간첩, 할머니 - 근대에 맞서는 근대』 출간



- 차례 -

1. 소개
2. 서지정보
3. 내용
4. 필자 약력
5. 목차
6. 주요 내용 발췌



1. 소개

근대를 바라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귀신, 간첩, 할머니—근대에 맞서는 근대』 출간



귀신, 간첩, 할머니를 불러내는 주문, 암호, 방언, 곡성!

근대성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기이한 근대성들’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에서는 도록을 두 편으로 나누어 출간한다. 전시 개막과 함께 출간된 전시 도록 <책 1>에는 출품작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전시와 전시작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책 2>는 『귀신, 간첩, 할머니: 근대에 맞서는 근대』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의 시작과 함께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비엔날레 전시 장면 사진과 더불어, 비엔날레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에세이와 논문이 실린다. <책 1>이 전시를 이루는 개별 작품에 초점을 맞춘다면, <책 2>는 작품의 관계와 그 의미의 맥락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공선옥, 리양, 박찬경, 왕후이, 문강형준, 박노자, 조한혜정을 비롯한 국내외 필자 17명이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타자화된 객체들을 ‘기이한 근대성’이라는 주제로 사유한 단행본 『귀신, 간첩, 할머니: 근대에 맞서는 근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와 현실문화연구의 공동 기획출판물로서, 가끔 눈에 띄지만 쉽게 보이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대상인 귀신, 간첩, 할머니를 통해 누락된 역사와 전통을 드러내는 새로운 역사서술이다. 귀신의 주문, 간첩의 암호, 할머니의 방언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성찰, 인류 공동체의 새로운 언어를 구상하는 집단지성의 흥미로운 도전물이다.



2. 서지정보

서적명	귀신, 간첩, 할머니 - 근대에 맞서는 근대
글쓴이	공선옥, 권현익, 김금화, 김용언, 리앙, 다지마 마사키, 문강형준 박노자, 박찬경, 베르톨트 브레히트, 셴 스나이더, 왕후이 고이즈미 요시유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이용우, 조한혜정, 한선희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현실문화연구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248쪽 15,000원 162*225(A5신)
분 야	인문/역사, 인문/문화, 예술 인문> 문화/문화이론 역사>한국근현대사 사회 > 사회비평 예술> 예술/대중문화의 이해
ISBN	978-89-6564-106-3 03900
금 액	15,000원
구입처	온라인 : 알라딘 (http://www.aladin.co.kr/) 오프라인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카페/서점 '아르떼' / 서울책방 일반서점



3. 내용

우리 인식의 맹점을 날카롭게 겨누고 있는 귀신, 간첩, 할머니를 불러내다

얼마 전 시대착오적이라 할 만한 뉴스 때문에 세간이 떠들썩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그것이다. 우리의 암울한 현대사를 특징이었지만 지금은 기억에서 거의 잊힌 것으로 여겼던 정치 현상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사람들은 당연지사 어처구니없는 반응 일색이었다. 간첩이 귀환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숨죽이며 음지에 웅크리고 있는 듯했던 온갖 세력들이 때 아닌 변신술을 발휘하면서 선거라는 정치의 최전선에 종횡으로 출몰했던 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금 유명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서슬 퍼런 강압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때마침 호명한 ‘귀신, 간첩, 할머니’는 혹시 이 수상한 시절을 염두에 둔 코멘트일까?

귀신, 간첩, 할머니는 서로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철 지난 시절의 산물이라는 것 정도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철 지난 시절의 산물’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조금 더 곱씹어본다면 이들이 소외와 억압을 표상하는 타자화된 객체들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근대와 식민, 냉전(그리고 독재)의 가파른 경로에서 맞닥뜨린 타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들은 우리의 인식의 맹점을 날카롭게 겨누고 있는 말들이기도 하다. 강압에 의해 혹은 쫓기듯이 내달아온 근대화, 전통의 급격한 단절과 폐기,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식민 논리, 자유진영 수호로 정당화된 냉전과 전쟁, 발전으로 포장된 독재를 뜻밖으로 꿰차고 있는 열쇳말인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우리(남한 혹은 북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아시아의 공통된 경험을 가로지르는 기저 언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타이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든 공유하고 있는 귀신, 간첩, 할머니는 민족-국가의 서사를 단박에 뛰어넘어 우리 자신, 아시아와 근대성, 나아가 세계를 사유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그래도 조금 더 개념화시켜 말해보자면 이 책에서 귀신은 아시아의 누락된 역사와 전통을, 간첩은 냉전의 기억을, 할머니는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온 기나긴 ‘여성의 시간’을 비유하고 있다.

세계적 석학, 예술가, 소설가, 소장학자 등 화려한 필진들이 펼치는 ‘기이한 근대성들’에 대한 17 편의 풍요로운 사유

“간첩은 비밀과 합체된 인격이고, 귀신은 전해들은 소문이고, 할머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과거를 품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가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대체로 쉽게 보이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보면 안 된다.”(박찬경, 20 쪽) 그렇기에 역사의 서술에서 누락된 이 고독한 유명들을 불러와 그들의 한 맺힌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기존의 역사서술을 뒤집고 누락된 역사에 새로운 목소리를 기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그녀들은 침묵의 기술자이자 고급 정보의 소유자”로, “다양한 해석으로 채워지고 재평가될 ‘신화적 존재’들이다. 이 책 『귀신, 간첩, 할머니: 근대에 맞선 근대』는 귀신, 간첩, 할머니가 쓰는 주문, 암호, 방언으로부터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성찰, 인류 공동체의 새로운 언어를 구상하는 집단지성의 흥미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 의 예술감독으로 활약한 미술가이자 전시기획자, 영화감독인 박찬경은 「귀신, 간첩, 할머니, 예술가의 협업」이란 제목의 글에서 ‘귀신, 간첩, 할머니’이라는 주제를 설파하면서 귀신, 간첩, 할머니를 동시대에 불러내는 예술가들의 주문, 암호, 방언이 아시아와 근대성을 사유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전복적이고 대안적인 의미의 충위를 주조해내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왕후이는 서구가 설정한 역사 해석의 틀을 벗어나 ‘중국과 그 근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민족주의 서사를 뛰어넘어 “근대성에 맞서는 근대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언어로 주요 소설이 번역, 소개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미로의 정원』이라는 책이 번역된 바 있는 타이완의 저명한 소설가 리양은 남한과 비슷하게 식민과 냉전을 혹독히 치러온 타이완에서 여귀가 생전에 겪은 폭력을 원혼의 경험과 회상으로 자세히 묘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중국 대륙, 일본 등이 침탈한 타이완의 역사-지리적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극장국가』의 (공)저자로 익히 알려진 권현익 캠브리지 대학교 석좌교수는 귀신이 많다는 베트남의 한 마을 이야기를 통해 초국적이고 세계적인 규모의 현대사적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냉전을 폭압적으로 겪었던 이 마을의 혼령들은 가족의 족보나 국민국가의 거대역사와 같은 기록된 역사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들려주는 역사는 때로 가족사나 민족사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가 겪은 경험에 보다 진실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17 편의 글은 귀신, 간첩, 할머니에 대해 결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귀신, 간첩, 할머니를 통해 본 아시아의 근대성은 그동안 우리를 강제해온(서구의) 단일한 근대성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고 복수(複數)의 ‘기이한 근대성들’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일한 근대성에 맞선 기이한 복수의 근대성들의 서사가 아시아에 대한 풍요로운 사유의 향연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외 여러 비엔날레 중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2014 년 〈미디어시티서울〉 비엔날레가 내건 주제 ‘귀신, 간첩, 할머니’의 함의를 풍부하게 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펴낸 책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책은 전시를 해설하고 전시 작품을 설명하는 책이 아닌, 별개의 단행본이다.



4. 필자 약력

❖ 공선옥

1963 년 전라남도 곡성 출생했다. 1991 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중편 「씨앗불」을 발표하며 등단했고 이후 23 년 동안 글을 쓰고 있다. 장편소설로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1993), 『시절들』(1996), 『붉은 포대기』(2003), 『수수밭으로 오세요』(2002), 『유랑가족』(2005), 『영란』(2010), 『내가 가장 예뻤을 때』(2009),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2013) 등을 발간하였다. 소설집으로 『피어라 수선화』(1994), 『멋진 한세상』(2002), 『명량한 밤길』(2007) 등을 펴냈고, 산문집으로는 『마흔에 길을 나서다』(2003), 『행복한 만찬』(2008), 『자운영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2000) 등이 있다. 1995 년 제 13 회 신동엽창작기금을 받았으며, 2014 년에는 오늘의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9 년도에는 만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권현익

사회인류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의 석좌교수이다. 런던정경대학에서 재직했었고, 서울대학교에 초빙교수로 있다. 시베리아와 베트남에서 현지조사를 했고 근래에는 한국전쟁의 현재적 역사에도 관심을 두고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학살, 그 이후』(2006), 『베트남 전쟁의 영혼』(2013), 『또 하나의 냉전』(2013), 『극장국가 북한』(공저, 2013) 등이 있다.

❖ 김금화

1931 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다. 12 세 때 무병을 앓은 후 17 세 때 큰무당이던 외할머니 김천일에게 내림굿을 받았으며, 현역 무당들을 따라다니면서 굿 현장의 경험을 쌓았다. 2 년 뒤 혼자 대동굿을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독립했다. 20 세인 1950 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으로 피난하여 활동하다가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 움직임 속에서도 1965 년 활동 무대를 서울로 옮겼다. 1967 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연평노래’와 배연신굿 공연으로 개인상을 받으면서 신문·방송 등 언론에 처음 소개됐다. 1982 년 한미수교 100 주년을 기념한 미국 공연 이후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 줄곧 나라굿을 도맡아왔다. 이후 스페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중국, 이탈리아, 일본 등에 초청받아 순회공연과 강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굿이 지닌 종교적·예술적·문화적 내용과 가치를 널리 알려왔다. 레비스트로스가 한국에 왔을 때 특별히 참관한 굿이 김금화의 만수대탁굿이었다. 1985 년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가 되었다. 1995 년 65 세 때 한중수교 3 주년 기념행사에서 개막공연을 했으며, 호암아트홀에서 〈김금화 대동굿〉을 공연하였다. 2004 년 백두산 천지에서서의 대동굿, 독일 베를린에서의 윤이상 선생을 위한 진혼굿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굿 공연을 선보였다. 2005 년 강화도에 건립한 서해안 풍어굿 전수관 ‘금화당’에서 서해안 풍어굿의 명맥을 이으며, 후학 양성과 한국 무속문화 전수에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김금화의 무가집』(1995),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1995), 『만신 김금화』(2014)가 있다.



❖ 김용언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와 동대학원 비교문학과 협동과정을 졸업했다. 영화 전문지 《키노》, 《필름 2.0》, 《씨네 21》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장르문학 전문지 《판타스틱》의 수석 에디터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서평 섹션 ‘프레시안 books’ 팀장을 거쳐 현재는 미스터리 소설을 전문으로 다루게 될 새로운 매체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노라 에프론의 『철들면 버려야 할 판타지에 대하여』와 마이클 더다의 『코난 도일을 읽는 밤』(2013), 지은 책으로는 『범죄소설』(2012)과 『다시 동화를 읽는다면』(공저, 2014)이 있다.

❖ 리양(李昂)

1952년생인 대만의 여성 작가 리양은 사회생활과 문학 창작 속에 묘하게 엮이는 성과 정치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세계 여성문학에 공헌하였다. 그녀는 16 세에 첫 단편 『꽃피는 계절』의 출간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여 20 여 편의 소설 및 단편선집을 출판하였다. 1983 년 출판된 중편소설 『남편을 죽이다』로 리양은 대만의 중요 현대작가 대열에 올라섰다. 다수의 대표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출판되고, 영화 및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2004 년에 리양은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아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예술문학기사훈장’을 수상하였다. 초기 작품에서는 성별정치적 주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대만의 계엄령 해제(1987) 이후에는 역사적 서사의 재구성 속에 성별 및 정치 이슈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연구하였다. 1990 년대의 4 개의 대표적 소설인 『미로의 정원』(1990), 『베이강의 향로에는 누구나 향을 쬔다』(1997), 『자서전: 소설』(2000), 『눈에 보이는 귀신』(2003)로 인하여 리양은 포스트 식민지 시대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성별정치 이슈를 결합해 대만의 여성문제를 연구하여 문학 장르 중 성별 이슈에 관한 창작에 새 지평을 열었다.

❖ 다지마 마사키(田島正樹)

1950 년생. 철학자. 언어철학에 기반해 형이상학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근대의 정치철학과 예술을 연구하며 라캉의 정신분석적 통찰을 끌어와 연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저서로는 『정의의 철학』, 『신학정치론』 등이 있다.

❖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중앙대와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에서 영문학/문화이론 박사과정을 마쳤다. ‘파국’, ‘광신’, ‘괴물’ 등 현재의 질서와 불화하는 이질적 담론들을 바탕으로 문화 텍스트를 분석하며 한국사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이며, 《한겨레》 토요판에 ‘크리틱’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혁명은 TV 에 나오지 않는다』(2012), 『파국의 지형학』(2011), 『영어를 잘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2009), 『사회를 말하는 사회』(공저, 2014), 『아이돌』(공저, 2011)이 있고, 역서로 『광신』(2013), 『권력을 이긴 사람들』(2008), 『루이비통이 된 푸코』(공역, 2012)가 있다.



❖ 박노자(朴露子)

박노자(블라디미르 티호노프, Vladimir Tikhonov)는 구소련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다. 1973 년생이며, 1994 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한국 고대사로 석사학위 취득했으며, 동일한 전공으로 1996 년에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러시아 국립인문대 비상근강사(1996 년)를 거쳐 경희대 강의전임강사(1997~2000), 오슬로대 부교수(2000~2006)를 역임했으며, 현재 오슬로대 정교수(2006 년 이후)를 역임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초기 민족주의 사상사, 한국 근현대 불교사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당신들의 대한민국 1』(2011), 『나를 배반한 역사』(2003), 『우승열패의 신화』(2005),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2009),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2012), 『좌파하라!』(2012) 등이 있다. 한국 국적자로서 한국 노동당의 당원이다.

❖ 박찬경

1965 년생. 박찬경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그는 냉전, 한국의 전통 종교문화, ‘미디어 중심의 기억’, ‘역사의 재구성’ 등을 주제로 다뤄왔다. 주요 작업으로는 <세트>(2000), <파워통로>(2004), <비행>(2005), <신도안>(2008), <광명천지>(2010),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2011), <파란만장>(2011, 박찬욱 공동 연출), <만신>(2013) 등이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암스테르담의 드 아펠 아트센터, 로스엔젤레스의 레드캣 갤러리, 프랑크푸르트의 쿤스트페어라인,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 등 여러 곳에서 작품이 소개된 바 있다.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4),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2011),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2011)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독일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극작가(1898~1956). 희곡 <바알 신(Baal)>(1919)과 <도시의 정글>(1923), 풍부한 환상과 냉정한 객관성,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도발을 결들인 서정시 <가정용 설교집(Die Hauspostille)>(1926)으로 주목을 받았다. 1933 년 나치가 정권을 잡자, 덴마크로 망명하여 반(反)파시즘 활동을 계속하면서 <제 3 제국의 공포와 빈곤(Furcht und Elend des Dritten Reiches)>(1938)과 <카라르 부인의 소총(Die Gewehre der Frau Carrar)>(1939) 등의 희곡을 집필하였다. 1940 년에는 핀란드로, 다시 1 년 뒤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대표작인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Mutter Courage und ihre Kinder)>(1939), <퐁틸라 씨와 그의 하인 마티(Herr Puntila und sein Knecht Matti)>(1941), <코카서스 백토의 테(Der Kaukasische Kreidekreis)>(1945) 등을 집필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메카시즘이 활개를 치던 1948 년에 스위스로 갔다가 그곳에서 <안티고네(Antigone)>(1948)와 <파리 코뮌의 나날(Die Tage der Commune)>(1948)을 썼으며, 당시까지의 그의 연극론을 정리해 <소사고 원리>를 출간했다.



❖ 셴 스나이더(Sean Snyder)

1972 년생. 베를린에서 활동. 셴 스나이더는 글로벌 미디어 안에서 정보와 이미지의 흐름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리서치 기반 작가이다. 스나이더는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 비엔나 시세션, 프랑크푸르트 포르티쿠스, 암스테르담 드 아펠, 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 쾰른 아트 어소시에이션 등에서 열린 개인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져 왔다.

❖ 왕후이(汪暉)

1959 년 장쑤성 양저우 출생. 이른바 중국 ‘신좌파’의 이론적 리더로 알려진 저명한 학자이다. 현재 칭화 대학 중문학과 교수이자, 같은 대학 인문·사회과학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3 년부터 제 12 기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 년 6 개월 정도를 임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1978 년 양저우사범대학에 입학했고, 난징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루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하버드 대학, 워싱턴 대학, 홍콩 중문 대학, 베를린 고등연구소, 볼로냐 대학, 컬럼비아 대학, 도쿄 대학 등에서 연구원과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996 년부터 『독서(讀書)』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독서』를 중국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지닌 잡지로 성장시켰다. 최근에는 칭화 대학 인문·사회과학고등연구소를 기반으로 중국의 정치개혁 담론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근본적 재인식을 목표로 하여 ‘지역연구’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망에 반항하라: 루쉰과 그의 문학세계』(1990), 『죽은 불 다시 살아나』(2000), 『중국현대사상의 흥기』(2005), 『아시아적 시야: 중국 역사의 서술』(2010) 등의 저작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 고이즈미 요시유키(小泉義之)

1954 년생. 철학자. 주로 데카르트, 들뢰즈, 레비나스를 연구하고 있다. 만화와 서브컬처에 대한 평론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윤리』, 『병의 철학』, 『생식의 철학』 등이 있다.

❖ 아피차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1970 년 태국 방콕 출생.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은 1994 년부터 필름과 비디오로 단편 작업을 해왔으며, 2000 년에 완성한 첫 장편영화 〈정오의 낮선 물체〉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친애하는 당신〉(2002), 〈열대병〉(2004), 〈징후와 세기〉(2006) 등의 장편과 함께 단편영화들, 다양한 설치와 전시 작업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앵클 분미〉(2010)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 이용우

미디어문화 역사연구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미디어문화연구, 맥길 대학교 예술사 및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코넬 대학교 아시아학과와 인문사회연구소(Society for the Humanities) 객원교수(2010~2013) 및 동경대 정보학환 특별연구원을 역임(2006~2007)했다. 현재 레이던 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에서 비판적 미디어문화연구, 냉전기 동아시아 소리 및 영상문화, 후식민적 역사서술 방식과 번역의 문제, 집단 무의식과 트라우마, 프로파간다로서의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 및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 대중음악을 통해 식민적의 연속성과 청각적 근대성의 역사문화적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볼 단행본을 집필 중이다.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자 비상임센터장).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에서 문화인류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 년에 귀국하여 연세대학교에서 강의, 연구, 사회운동, 집필 활동을 해왔다. 역사와 생활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분석적인 시대 탐구 작업, 특히 창의적 공유 지대로서의 실천적 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해왔다. 1980 년대 초반부터 대안문화를 만들어가는 《또하나의문화》 동인으로 활동해왔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창의적 공공지대인 서울시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일명 하자센터, 1999 년)를 설립하였다. 갈수록 난감해지는 시대의 해법으로 최근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2012 년 이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돕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여성과 남성』(1988), 『탈식민지 시대의 글읽기와 삶읽기 1~3 권』(1992, 1994),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1996),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1998),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2000), 『다시 마을이다』(2007) 등이 있다.

❖ 한선희

한선희는 서울의 영화제작자이자 연구자이다. 극장용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2011, 정재은 감독), 〈만신〉(2013, 박찬경 감독)의 프로듀서로 일했으며, 〈망원동 인공위성〉(2013, 김형주 감독)을 제작했다. 또한 디스커버리 채널에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바다의 만신〉(2012)의 프로듀서로 일했다.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개발하면서 글을 쓰고 책과 출판물을 편집해 왔으며, 〈만신〉 제작을 토대로 최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김수남 김인회의 곳 다큐멘터리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5. 목차

귀신, 간첩, 할머니, 예술가의 협업 — 박찬경
대상의 해방과 근대에 대한 물음 — 왕후이

주문

귀신, 여자 귀신, 빙의 — 리앙
친근한 이방인 — 권현익
나부아의 기억 —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암호

의심을 찬양함 — 베르톨트 브레히트
또 하나의 ‘회색분자’, 간첩 — 박노자
벨로루시에서의 불복종 — 셴 스나이더
이상한 할머니들 — 김용언

방언

간첩처럼 숨어서 귀신처럼 기도하는 할머니 — 공선옥
동트기 전의 어둠, 외롭지 않은 안티고네들 — 조한혜정
아시아 디바와 근대성의 목소리들 — 이용우

곡성

시작도 끝도 없다 — 다지마 마사키
사건의 때 — 고이즈미 요시유키
애도의 차원들 — 문강형준
파경 — 김금화
파경 해설 — 한선희



6. 주요 내용 발췌

영화 속의 스파이는 매력적이지만, ‘간첩’은 무섭다. 신(神)은 받들어야 하나 귀(鬼)는 멀리해야 한다. 적어도 유교사회에서 노인은 공경해야 마땅한 존재지만, 사회 속의 할머니는 대대적인 젊음의 찬양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장이 허락된다면, 이들은 모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간첩은 비밀과 합체된 인격이고, 귀신은 전해들은 소문이고, 할머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과거를 품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가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대체로 쉽게 보이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보면 안 된다. 그들/그녀들은 침묵의 기술자이자, 고급정보의 소유자다. 그들은 모두 어떤 편에 속해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 ‘경계인’이며, 다양한 해석으로 채워지고 재평가될 ‘신화적’ 존재다. —박찬경(20 쪽)

다양성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해결책에 대한 사유다. 나는 이런 이유로 늘 근대성에 맞서는 근대성이라는 논법으로 중국의 근대를 서술한다. 그러나 우리는 근대사의 한 기본적 조류가 어떻게 이 다양성을 휩쓸어갔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부정한다면 ‘빠져 나온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로 변하지 않겠는가? 또 자신과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변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단순한 하나의 길이 아니라 근대성의 다중성에 대한 성찰이 하나 혹은 한 다발의 가능한 방향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나의 의도다. —왕후이(34 쪽)

병영국가 체제인 남한에서 ‘간첩’보다 무서운 단어는 없었다. 각계각층에 심어져 체제 전복과 적화통일을 준비한다는 보이지 않는 암적 세력인 고정간첩, 약간이라도 부주의하면 곧장 기밀 빼내기와 요인 살해, 시설 파괴에 착수한다는 남파간첩……. ‘우리 속의 적대적 타자’인 그들은, 반공극우 정권 유지의 주된근거인 이북의 ‘악마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이렇게도 체제 유지에 긴요한 ‘악마’들이 찾아지지 않을 때 관제간첩들이 대량으로라도 제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권력에 필요한 그 무엇이 현실 속에 부재한다면……. // 결국 권력이 관제현실을 조작해낸다. 북한에서도 ‘미제간첩’에 대한 대중적 공포증이 만만치 않은 것까지 생각하면, 두 체제의 적대적 공존 속의 한반도 전체가 ‘오웰적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84 년』의 가상세계는 우리 현실이었다. —박노자(79 쪽)

광주 금남로 5 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지하상가 계단에는 할머니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 할머니들이 무슨 말을 나누나 옛들을 마음에 나도 그 옆에 슬쩍 앉았다.

이대로는 절대 안 돼야.

어퍼부러야 써.

송악해도 이리 송악할 수가 없어.

돈이면 다되는 중 알어.

뭔 난리가 나도 나게 생겼어, 시방.

이 할머니들은 누구인가. 그렇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돈이면 다된다고 생각하는 이 송악한 세상은 엎어버려야 한다. 이 할머니들도 종북좌파인가? 돈 세상인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할머니들은 혹시 체제 전복 기도자들인가? 뭔 난리가 나도 나게 생겼다고 은근히 바람을 넣는 것이 혹시 내란 음모자들인가. —공선옥(131 쪽)



(‘자멸 중인 근대 이후’에 대한) 성찰적 학습의 현장은 바로 시장과 국가에 의한 강탈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들이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국민들의 과수원과 마을을 가로질러 초고속 송전탑을 세우려는 공권력의 현장, 여섯 명의 할머니들을 끌어내기 위해 2,000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투쟁을 비웃는 그런 현장이다. 중앙집권화된 그 권력은 맞붙어 싸우기에는 이미 너무 부패하고 사악해져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단순한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개인의 근원적 변신이 요구되는 시간대인 것이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쳐서 나비가 되듯 우리의 비약적 성숙이 요구되는 때이다. —조한혜정(149 쪽)

‘과연 우리는 세계를 애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계의 파국 앞에서 혹은 뒤에서 우리는 세계 자체를 애도할 수 있는가.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상상력은 엉망이 된 지구와 인간의 모습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문명은 사라졌고, 국가는 간 데 없고, 폭력은 난무하고, 생존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 끔찍한 미래 앞에서, 즉 오지 않았으나 언젠가 오고야 말 세계의 미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애도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죽어버린 세계를 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는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세계 속에서 사는 나 역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산 자가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일이 애도라면, 죽은 내가 죽은 세계를 애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문강형준(197 쪽)



7. 담당자 연락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김혜진
jin@mediacityseoul.kr
02.2124.8988 / 010.8750.1904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이선유
seonyu@mediacityseoul.kr
02.2124.8979 / 010.8500.9686

서울시립미술관

SeMA 비엔날레 담당 큐레이터
유민경
minkyungyoo@seoul.go.kr
02.2124.8973 / 010.8642.2089

서울시립미술관 홍보 큐레이터
변지혜
bsjihye@seoul.go.kr
02.2124.8928 / 010.2783.8605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 Internet Explore에서만 열람 가능)

<http://webdisk.eseoul.go.kr/ohd/pm/home/login.php>

Guest 로그인 → ID: bsjihye PW: sema2013

웹사이트 www.mediacityseoul.kr

SNS

트위터 twitter.com/mediacityseoul

페이스북 www.facebook.com/mcs2014

인스타그램 [instagram.com/mediacity_seoul](https://www.instagram.com/mediacity_seoul)